

진부올벼

진부올벼는 1992년부터 장려품종으로 보급되고 있는 내냉성이 강하고 출수기가 빠른 양질미 품종으로 중북부의 산간고냉지에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다. 이 품종은 작물시험장 벼육종연구진에 의해 1980년부터 1992년의 13년에 걸쳐 육성된 품종이다.



진부올벼는 내냉성이 강한 극조생종의 품종으로서 중북부 산간고냉지에 적합한 품종이다

1. 육성경위

1980년에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 내냉성이 강한 조숙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우모찌 296에 이시카리스 1을 인공교배하고 까미이꾸모찌 38을 삼원교배하여 잡종 제1세대를 경과한후 1981년부터 작물시험장 진부출장소에서 집단 육종법으로 세대를 진전시키면서 내냉성이 강하고 여러가지 특성이 우수한 극조생 계통으로 선발하여 진부 11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1989-'91년에 지역적응시험과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강원도 지방의 산간고냉지 재배에 적합한 계통으로 인정되어 1992년 1월의 주요 농작물 종자협의회에서 이들 지역에 보급할 장려품종으로 결정하고 진부올벼로 명명하였다.

2. 주요 특성

진부올벼의 출수기는 산간고냉지 보통기 재배에서 7월 31일로 소백벼보다 8일정도 빠르고 송전벼보다 3일정도 늦은 극조생종이다.

진부올벼의 잎은 담녹색으로 길이나 폭은 송전벼와 비슷하며 직립초형이다. 간장은 59cm로 송전벼와 비슷하고 소백벼보다 약간 크편이며 줄기의 굵기, 강도 및 분얼개도는 보통으로 도복이 잘 되지 않는다.

수량구성형질 및 미질특성을 보면 진부올벼의 수장은 16cm, 수수는 17개, 수당입수는 57개로 송전벼와 비슷하며 등숙비율이 높고 현미천립중은 24.1g으로 소백벼나 송전벼보다 약간 무겁다. 쌀이 맑고 깨끗하며 밥맛이 좋은 편이다.

내재해성과 내병충성에 있어서는 각 생육단계별로 내냉성이 강하며 도열병에는 중간 정도의 저항성을 보이거나 흰잎마름병, 바이러스병과 벼멸구등의 해충에는 약한편이다.

< 진부올벼의 일반생육특성 및 내재해성 >

품종명	출수기 (월.일)	간장 (cm)	수장 (cm)	주당수수 (개)	수당립수 (개)	등숙비율 (%)	현미천립중 (g)	내냉성	내도복성
진부올벼	7.31	59	16	17	57	88	24.1	중강	강
송 전 벼	7.28	59	16	17	59	84	22.2	중강	강
소 백 벼	7.30	53	18	14	71	84	19.9	중강	강

진부올벼의 수량성은 1987년과 1988년의 심한 냉해년도에 수행한 보통기 보비재배의 생산력검정시험 결과 10a당 쌀수량 393kg으로 송전벼에 비하여 13%의 증수를 보였고 다비재배에서는 402kg으로 9% 증수되었다.

1989-'91년의 3개년간 산간고냉지에서 실시한 지역적응시험의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평균 쌀 수량이 472kg으로 비슷한 출수기의 송전벼보다 12%의 증수를 보였다.

강원도 평창군 속사리의 고냉지에서 실시한 농가실증시험에서는 진부올벼의 출수기가 소백벼보다 12일 정도 빨랐고 간장은 10cm 컷으며 이삭당 벼알수는 적으나 이삭수가 많고 등숙이 양호하여 쌀수량이 407kg/10a로 송전벼보다 3% 정도 감수되었다.

< 진부올벼의 수량성 >

품종명	생산력검정시험		지적시험		농가실증시험	
	쌀수량(kg/10a)	지수	쌀수량(kg/10a)	지수	쌀수량(kg/10a)	지수
진부올벼	393	113	472	112	407	97
송 전 벼	349	100	421	100	420	100

3. 적응지역 및 재배상의 유의점

진부올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은 강원도를 중심으로한 표고 500m이상의 산간 고냉지이다. 진부올벼는 우리나라 장려품종중에서 가장 조생종인 송전벼와 비슷한 극조생종이므로 중산간지나 평야지 재배에서는 새나 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도열병에는 중간정도의 저항성을 보이나 기타 병충해에는 약한 반응을 나타내므로 적기에 방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송 문 태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수도육종과

(441-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9

0331-290-6636(FAX: 0331-292-4560)

